

로샤 종합체계(Rorschach Comprehensive System)에서 경험실제(Experienced Actual; 이하 EA)는 피검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stress tolerance) 및 통제능력에 관한 대표적인 지표이다. EA는 피검자가 경험하는 자극과부하 상태를 시사하는 경험자극(experienced stimulation; 이하 es)과의 상대적인 양에 기초해서 해석된다(Weiner, 1998). EA에는 인간운동반응(M)과 유채색반응(C, CF, FC)이 포함된다. es에는 동물운동반응(FM), 무생물운동반응(m), 무채색반응(C, CF, FC), 음영-재질반응(T, TF, FT), 음영-확산반응(Y, YF, FY), 음영-차원반응(V, VF, FV)이 포함된다.

EA와 es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자극 요구나 자극 과부하 같은 용어들은 스트레스, 정서, 그리고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분야에서 차용(借用)한 개념들이다(Exner, 1993). Exner(1993)에 따르면, 통제 능력이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가용자원을 정교하고 의미있게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검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극 요구가 가용자원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Exner(1993)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통제 능력의 부산물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통제 능력이 증가하면,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도 증가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통제 능력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항상 적응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통제능력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생산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방어적인 노력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의 통제 능력이 제한되고 부적합하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는 부적응의 전조가 된다.

EA와 es를 통제 관련 변인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주로 심리치료를 받은 후 로샤 검사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Exner,

1974; Exner & Sanglade, 1992; Piotrowsky & Schreider, 1952; Weiner & Exner, 1991)을 통해 얻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의 경우,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로샤 검사 결과에서 EA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es는 감소한다.

Weiner(1998)는 로샤 카드들의 일반적 의미를 규명한 문헌들(Aronow & Reznikoff, 1976; Aronow, Reznikoff & Moreland, 1994; Klopfer, Ainsworth, Klopfer, & Holt, 1954)에 기초하여, 10 장의 로샤 카드 각각의 고유한 주제(theme)들을 요약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카드 I은 피검자에게 첫 번째로 제시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피검자들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문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주제를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Weiner(1998)에 따르면, 로샤 카드들의 상징적 의미들은 피검자들이 편안함 혹은 불편감을 경험하는 심리적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피검자가 로샤 카드를 회피하지 않고 불편감을 경험하지 않으며 반응한다면, 해당 로샤 카드의 주제와 관계된 문제들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다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특정 로샤 카드들에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그러한 카드들과 연관된 주제나 문제에 대처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로샤 카드와 관계된 주제들에 피검자가 적응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지 아니면 제한된 대처방식을 나타내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로샤 반응의 질(quality)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반응내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시사하는 반응(MOR, An, Bl, Xy 등), 형태질(FQxu, FQx-, FQxNone), 평범반응(P), 발달질 수준(DQv 또는 DQv/+), 인지적인 실수 또는 논리적인 결함을 반영하는 특수점수(DV, INC, DR, FAB, ALOG,

CON), 자극과부하 상태 및 대처자원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제관련 변인(EA와 es) 등이 사용된다(Weiner, 1998). 그런데 개별적인 로샤 반응에서의 질이 아니라, 로샤 카드별 주제(theme)와 관계된 반응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통제 관련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첫째, 평범반응을 로샤 반응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평범반응으로 채점되는 반응들(카드 I의 박쥐 등)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평범 반응으로는 채점되지 않지만 양호한 수준의 형태질(FQ_{no})로 채점되는 반응들(예컨대, 카드 I의 새 등)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평범 반응에 속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응의 질이 낮다고 판정내리기는 힘들다.

둘째, 반응내용 상 심리적인 고통을 시사하는 반응들(MOR, An, BI, Xy 등)을 보이는 지 여부에 따라 반응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 반응빈도 상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Exner(1993)에 따르면, 정상성인이 전체 로샤 반응들 중 심리적인 고통을 시사하는 내용반응을 나타내는 빈도는 매우 적다. 정상성인의 경우 MOR의 반응빈도는 평균 .70개, An은 평균 .42개, BI은 평균 .15개이며 Xy는 평균 .03개이다. 로샤 카드가 10장이므로 카드 당 반응빈도는 평균적으로 1/10씩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카드에서 내용상 심리적인 고통을 시사하는 반응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카드와 관련된 문제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용상 심리적인 고통을 시사하는 반응들은 기대빈도 자체가 매우 낮아서, 해당 카드와 관련된 문제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들을 산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응빈도 상의 불균형 문제는 형태질, 발달질, 논리적인 결합과 관련된 특수점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Exner(1993)에 따르면, 정상성인의 경우 전체 로샤반응에서 양호한 수준의 발달질(DQ_v)이 나타나는 빈도는 평균 13.64개인 반면 낮은 수준의 발달질(DQ_v 또는 DQ_v+)이 나타나는 빈도는 그 둘을 합쳐도 평균 1.71개에 불과하다. 또한 양호한 수준의 형태질(FQ_{no})이 나타나는 빈도는 평균 16.99개이지만, 낮은 수준의 형태질(FQ_{su}, FQ_s, FQ_{sNone})이 나타나는 빈도는 그 셋을 모두 합쳐도 평균 4.78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논리적인 반응과 연관된 특수점수(DV, INC, DR, FAB, ALOG, CON)의 경우에도 1수준과 2수준의 비논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빈도는 로샤 검사의 총반응수 중 평균 1.65개에 불과하다(Exner, 1993).

그런데, EA와 es가 10 장의 로샤 카드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빈도는 유사하다. Exner(1993)에 따르면, 미국 정상 성인의 경우 EA로 채점되는 반응요소들의 평균빈도는 8.83개이고 es로 채점되는 반응요소들의 평균빈도는 8.20개이다. 그리고 신경진과 원호택(1991)에 따르면, 한국 정상 성인의 경우 EA로 채점되는 반응요소들의 평균빈도는 9.86개이고 es로 채점되는 반응요소들의 평균 빈도는 9.37개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 두 가지 변인이 개별 로샤 카드에서 나타날 기대빈도는 1에 근접해 있다. 이러한 점은 로샤 카드별 주제(theme)와 관계된 반응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변인들보다 EA와 es 변인이 적임자임을 시사해준다.

개별 로샤 카드에서 통제관련 변인이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 4가지 패턴은 바로 “EA 포함반응”과 “EA-es 공존반응”, “es 포함반응”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이다. 로샤 카드별 주제(theme)와 관계된 반응의 질

을 평가할 목적으로 통제관련 변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피검자가 특정 카드에서 “*as* 포함반응”을 나타낸다면, 해당 카드와 관련된 주제(theme)에 대해서 자극과부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편감을 나타낼 것이다. 둘째, “*EA* 포함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카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반응이 산출된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에서도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것이다. 셋째, 특정 카드에서 “*EA-as* 공존반응”을 보이는 경우, 해당 카드의 주제(theme)와 관련해서 심리적인 갈등 상태에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도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앞선 두 가지 유형의 반응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의 정서적인 불편감을 나타낼 것이다. 넷째, “*EA-as* 비포함반응”의 경우, 비록 “자극과부하 상태”를 뜻하는 *as*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대처자원의 존재”를 의미하는 *EA*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EA* 포함반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불편감을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로샤 반응에 통제 관련 변인이 나타나는 패턴에 따른 피검자의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치들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피검자들은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65명이었고 이들 중 남자는 32명이었으

며 여자는 3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9.82세, 평균학력은 13.82년이었다. 피검자들은 모두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한 사람들이었으며 로샤 검사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로 하고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로샤 검사 체계

로샤 검사의 실시 및 체점의 모든 과정은 Exner 종합체계(1993)를 따랐다. 반응단계에서 14개 미만의 반응을 보이는 피검자들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도록 격려한 뒤, 반응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로샤 검사는 임상경력 이 5년 이상인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실시하였다. 로샤 검사 실시의 표준화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 각 검사자의 로샤 검사 과정을 비디오로 3차례 촬영한 후에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 상의 오류를 교정하였다.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로샤 검사의 표준화된 시행을 마친 뒤, 피검자에게 10장의 자극카드를 다시 보여주고 각 카드 별로 쾌-불쾌, 이완-긴장, 흥분-우울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세 차원으로 평정하도록 한 것은 Kendler(1987)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Kendler(1987)는 정서를 반영하는 안면표정에 대한 요인분석 및 단어의 내포의미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Wundt가 제시한 감정의 삼차원 이론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Kendler, 1987). 정서평정 질문지의 쾌-불쾌 차원은 평가(evaluation) 요인을, 긴장-이완 차원은 집중(concentration) 요인을 그리고 흥분-우울 차원은

활동성(activity)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사카드에 대한 정서평정 질문지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로사 검사 자료에는 피검자들 간 편차와 피검자들 내 편차가 모두 존재한다. 피검자들 간 편차를 보이는 자료로는 로사 총반응수와 카드별 반응수가 있다. 피검자들의 로사 총반응수는 최소 14개에서 최대 36개로서 피검자들마다 상이하였다. 각 카드별 반응수도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EA와 es의 총반응수 및 카드별 반응수도 피검자들마다 달랐다. 이처럼 피검자들 간 편차가 존재하는 로사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65명 각각의 로사 검사 반응들을 “EA 포함반응”과 “EA-es 공존반응”, “es 포함반응”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보통한 피검자의 로사 검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반응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검자 내에서도 각 반응유형별로 편차를 보인다. 또한 동일한 로사반응 유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반응이 산출된 로사 카드에 대한 피검자의 정서평정치들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총 20개의 로사반응을 응답한 어느 피검자는 “EA 포함반응” 6개, “EA-es 공존반응” 4개, “es 포함반응” 7개,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 3개를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이 피검자의 “EA-es 비포함반응” 3개가 카드 I, 카드 III, 그리고 카드 V에서 산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피검자가 쾌-불쾌 차원의 정서평정에서 카드 I에는 7점, 카드 III에는 5점 그리고 카드 V에는 6점을 평정하였다면, 그 피검자의 “EA-es 비포함반응”에 대한 쾌-불쾌 차원 평정점수는 평균

인 6점을 입력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초점이 피검자가 각 카드에 대해서 어떤 정서평정을 하는 지 또는 로사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이 특정 피검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 관련 변인이 나타나는 패턴에 따라 그러한 반응이 산출된 로사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검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로사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치들은 척도 점수가 몇 점인가 하는 척도 점수 그 자체보다는 로사 반응유형별 상대적인 순위 정보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적인 분석 과정에서도 네 가지 반응유형에 따른 정서평정치들의 순위 정보에 기초하여 Friedm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증 과정에서는 준거변인으로 “EA 포함반응”을 사용하여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3차례 반복하였다. 이 때 다중비교 과정에서 Bonferroni 수정에 근거하여 유의수준을 조정하였다.

결 과

표 1은 EA와 es 그리고 세 차원의 정서평정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로사 카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기대빈도는 해당 반응요소의 빈도를 피검자 수 65명으로 나눈 것이다. 로사 카드에 대한 EA와 es의 기대빈도는 유사하였다(EA 의 $f_e = 12.29$; es 의 $f_e = 11.41$). EA의 경우 카드별 기대빈도가 .9 이상, 즉 해당 로사 카드에서 EA 반응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나타날 기대확률이 90% 이상인 카드가 7장이었고 es의 경우는 8장이었다. EA는 카드 II($f_e = 2.03$)에서 그리고 es는 카드 IX($f_e = 1.69$)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빈도를

표 1. EA 및 es의 빈도와 기대빈도 그리고 세 차원의 정서평정치 평균

		카드 I	카드 II	카드 III	카드 IV	카드 V	카드 VI	카드 VII	카드 VIII	카드 IX	카드 X	전체
EA 반응 요소												
M	f	60	65	76	48	31	6	64	14	12	50	426
	(f)	(.92)	(1.00)	(1.17)	(.73)	(.48)	(.09)	(.98)	(.22)	(.18)	(.77)	(6.55)
all C	f	0	67	43	0	0	0	0	78	110	75	373
	(f)	(.00)	(1.03)	(.66)	(.00)	(.00)	(.00)	(.00)	(1.20)	(1.69)	(1.15)	(5.74)
EA	f	60	132	119	48	31	6	64	92	122	125	799
	(f)	(.92)	(2.03)	(1.83)	(.73)	(.48)	(.09)	(.98)	(1.41)	(1.87)	(1.92)	(12.29)
es 반응 요소												
all C'	f	36	24	13	5	13	17	8	0	24	12	152
	(f)	(.55)	(.37)	(.20)	(.07)	(.20)	(.26)	(.12)	(.00)	(.37)	(.18)	(2.34)
all T	f	0	0	0	12	0	12	0	6	0	0	30
	(f)	(.00)	(.00)	(.00)	(.18)	(.00)	(.18)	(.00)	(.09)	(.00)	(.00)	(.46)
all V	f	0	0	1	1	1	2	1	2	2	0	10
	(f)	(.00)	(.00)	(.02)	(.02)	(.02)	(.03)	(.02)	(.03)	(.03)	(.00)	(.15)
all Y	f	0	13	2	7	6	24	0	6	6	0	64
	(f)	(.00)	(.20)	(.03)	(.11)	(.09)	(.37)	(.00)	(.09)	(.09)	(.00)	(.98)
FM	f	48	19	6	23	48	7	6	47	6	35	245
	(f)	(.74)	(.29)	(.09)	(.35)	(.74)	(.11)	(.09)	(.72)	(.09)	(.54)	(3.77)
m	f	6	36	14	18	18	43	0	12	72	22	241
	(f)	(.09)	(.55)	(.22)	(.28)	(.28)	(.66)	(.00)	(.18)	(1.11)	(.34)	(3.70)
es	f	90	92	36	66	86	105	15	73	110	69	742
	(f)	(1.38)	(1.41)	(.55)	(1.02)	(1.32)	(1.62)	(.23)	(1.12)	(1.69)	(1.06)	(11.41)
EA-es 비포함 반응												
	f	72	11	7	43	22	69	25	12	6	2	269
	(f)	(1.11)	(.17)	(.11)	(.66)	(.34)	(1.06)	(.38)	(.18)	(.09)	(.03)	(4.14)
정서평정												
불쾌	M	6.36	5.49	4.32	6.76	4.43	4.76	3.96	4.98	6.27	3.27	5.06
	(SD)	(2.05)	(2.53)	(2.21)	(1.78)	(1.80)	(1.80)	(4.88)	(2.19)	(2.83)	(2.33)	(2.38)
긴장	M	6.55	4.93	4.74	6.73	4.10	4.56	3.78	5.38	6.75	5.03	5.26
	(SD)	(1.81)	(2.42)	(1.74)	(1.39)	(1.52)	(1.69)	(1.22)	(2.14)	(2.02)	(2.55)	(2.15)
우울	M	5.33	4.91	3.91	5.91	4.79	4.65	4.51	4.08	6.14	3.25	4.75
	(SD)	(1.84)	(2.10)	(1.58)	(1.71)	(1.06)	(1.98)	(1.21)	(1.99)	(2.58)	(1.94)	(1.91)

주. 기대빈도 f_e 는 빈도 f 를 피검자수 ($N = 65$)로 나눈 것임.
 all C = (C, CF, FC), all C' = (C', CF, FC), all T = (T, TF, FT),
 all Y = (Y, YF, FY), all V = (V, VF, FV).

보였다. 그리고 EA는 카드 VI($f_i = .09$)에서 그리고 es는 카드 VII($f_i = .23$)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빈도를 보였다. 또한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 평정의 경우, 피검자들은 카드 IV에 대해서 가장 불쾌하다고 평정하였으며 ($M = 6.76, SD = 1.78$), 카드 IX에 대해서 가장 긴장 ($M = 6.76, SD = 1.78$)되고 우울 ($M = 6.76, SD = 1.78$)하다고 평정하였다. 그리고 피검자들은 카드 X에 대해서 가장 덜 불쾌 ($M = 3.27, SD = 2.33$)하고 가장 이완 ($M = 3.78, SD = 1.22$)되며 카드 VII에 대해서 가장 흥분 ($M = 3.25, SD = 1.94$)된다고 평가하였다.

표 2는 EA 및 es 반응요소와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A 포함 반응의 경우, 세 가지 정서차원에 대한 평정치 모두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쾌-불쾌 차원 $r = -.20, p < .001$; 이완-긴장 차원, $r = -.13, p < .001$; 흥분-우울 차원, $r = -.09, p < .01$). 반면에, es 포함반응의 경우, 두 가지 정서차원에 대한 평정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쾌-불쾌 차원 $r = .15, p < .001$; 이완-긴장 차원, $r = .19, p < .001$).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의 경우에도 두 가지 정서차원에 대한 평정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쾌-불쾌 차원 $r = .07, p < .05$; 흥분-우울 차원, $r = .13, p < .001$).

표 3은 통제관련 변인에 따라 분류된 네 가지 로샤 반응유형들에서, 피검자가 로샤 카드의 쾌-불쾌 수준을 평정한 점수를 대상으로 Friedman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쾌-불쾌 평정점수는 네 가지 로샤반응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 N = 65) = 15.94, p < .01$. 그리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EA 포함반응”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여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시행한 결과,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 .02(.05/3)를 적용할 경우, “EA 포함반응”과 “EA-es 공존반

응” 간에는 쾌-불쾌 평정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1.78, p > .02$. 하지만, “es 포함반응”을 나타낼 때, 피검자들은 “EA 포함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비해 로샤 카드를 더 불쾌하다고 평정하였다, $Z = -3.51, p < .001$.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피검자들은 “EA 포함반응” 때에 비해 로샤 카드를 더 불쾌하다고 평정하였다, $Z = -3.05, p < .02$.

표 2. EA 및 es 반응요소와 정서평정치 간 상관

	쾌-불쾌	이완-긴장	흥분-우울
EA 포함 반응	-.20***	-.13***	-.09**
es 포함 반응	.15***	.19***	.04
EA-es 비포함 반응	.07*	-.01	.13***

주. 피검자들($N = 65$)의 로샤 총반응수 135개를 대상으로, EA와 es 요소 포함 유무에 따라 더미 코딩(dummy coding)을 한 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통제 관련 변인과 쾌 불쾌 평정

변인	쾌-불쾌 평정점수 M(SD)	평균 순위
EA 포함반응 ^a	4.21(2.23)	2.02
EA-es 공존반응 ^b	4.91(2.26)	2.45
es 포함반응 ^c	5.57(2.25)	2.78
EA-es 비포함반응 ^d	5.56(1.99)	2.75
$\chi^2(3, N = 65)$	15.94**	
사후검증	$a < c^{**}, d^{\dagger}$	

주. 사후검증으로는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하였으며 이 때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인 .02(.05/3)를 적용하였음
* $p < .02$. ** $p < .001$.

표 4는 네 가지 로샤반응 유형에 따른 이완-긴장 평정점수 상에서의 차이를 Friedman 검증한 결과이다. 이완-긴장 평정점수는 네 가지 로샤반응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 N = 65) = 13.04, p < .01$. 그리고 그리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EA 포함반응”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여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시행한 결과,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 .02를 적용할 경우, “EA 포함반응”과 “EA-es 공존반응” 간에는 이완-긴장 평정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1.99, p > .02$. 하지만, “es 포함반응”을 나타낼 때, 피검자들은 “EA 포함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비해 로샤 카드에 대해 더 긴장된다고 평정하였다, $Z = -2.77, p < .01$.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피검자들은 “EA 포함반응” 때에 비해 로샤 카드를 더 긴장된다고 평정하였다, $Z = -3.63, p < .001$.

표 5는 네 가지 로샤반응 유형에 따른 흥분-우울 평정점수 상에서의 차이를 Friedman 검증한 결과이다. 흥분-우울 평정점수는 네 가지 로샤반응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 N = 65) = 15.28, p < .01$. 그리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EA 포함반응”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여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시행한 결과,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 .02를 적용할 경우, “EA 포함반응”과 “EA-es 공존반응” 간에는 흥분-우울 평정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41, p > .02$. 하지만 “es 포함반응”을 나타낼 때, 피검자들은 “EA 포함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비해 로샤 카드를 더 우울하다고 평정하였다, $Z = -3.57, p < .001$. 그리고 “EA-es 비포함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피검자들은 “EA 포함반응” 때에 비해 로샤 카드를 더 우울하다고 평정하였다, $Z = -2.69, p < .01$.

표 4. 통제-관련 변인과 이완-긴장 평정

변 인	이완-긴장 평정점수 M(SD)	평균 순위
EA 포함반응 ^a	4.55(2.03)	2.05
EA-es 공존반응 ^b	5.23(1.91)	2.50
es 포함반응 ^c	5.50(2.05)	2.65
EA-es 비포함반응 ^d	5.83(1.92)	2.79
$\chi^2(3, N = 65)$	13.04*	
사후검증	$a < c^*, d^{**}$	

주. 사후검증으로는 Wilcoxon 부호 서열 검증을 하였으며 이 때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인 .02(.05/3)를 적용하였음
* $p < .02$. ** $p < .001$.

표 5. 통제-관련 변인과 흥분-우울 평정

변 인	흥분-우울 평정점수 M(SD)	평균 순위
EA 포함반응 ^a	4.24(1.73)	2.15
EA-es 공존반응 ^b	4.38(2.11)	2.32
es 포함반응 ^c	5.38(2.14)	2.89
EA-es 비포함반응 ^d	5.04(1.45)	2.65
$\chi^2(3, N = 65)$	15.28*	
사후검증	$a < c^{**}, d^*$	

주. 사후검증으로는 Wilcoxon 부호 서열 검증을 하였으며 이 때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인 .02(.05/3)를 적용하였음
* $p < .02$. ** $p < .001$.

새로운 표본을 통한 재검증

EA와 es 변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Exner, Viglione, & Gillespie, 1984; Exner & Sanglade, 1992; Weiner & Exner, 1991)은 구조적 요약을 통한 EA 총점과 es 총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개별 반응수준에서 통제관련 변인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선 분석 결과에 대해서 수렴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에 기술한 연구 결과는 단일 표본에 기초하여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표본오류 편향의 가능성으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는 집단 간 비교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은 피검자 65명의 잠재적인 성격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선 분석 결과를 재검증하였다.

피검자들은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58명(남자 31명, 여자 2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19.17세, 평균학력은 12.92년이었다. 피검자들은 로샤 검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로 하고서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재검증 연구에서 도구 및 분석방법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재검증 결과, 부분적으로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Friedman 검증 후, “EA 포함반응”을 준거 집단으로 활용하여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시행한 결과, Bonferroni 수정에 기초한 유의수준 .02를 적용할 경우, “EA 포함반응”과 “EA-es 공존 반응” 간에 캐-불패 평정점수 및 흥분-우울 평정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변화를 제외한다면, 통계적인 유의수준의 변화(예컨대, .001에서 .01로의 변화)만이 발견될 뿐, 전체적으로 재검증 결과는 앞선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논 의

재검증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발견되기

는 했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A 포함반응”에 비해 “es 포함반응”에서 피검자들은 해당 로샤 카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불쾌하고 긴장되며 우울하다고 평정하였다. 그리고 “EA-es 비포함 반응”은 세 차원 모두에서 “es 포함반응”과 유사하게 평정되었다. 반면 “EA-es 공존 반응”의 경우 통계적인 검증 결과 상에서 표본에 따라 일부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평균점수 또는 평균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세 가지 정서 차원 모두에서 “EA 포함반응”과 “es 포함반응”의 중간 수준으로 평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EA 포함반응”에 비해 “es 포함반응” 또는 “EA-es 비포함 반응”에서 피검자들이 로샤 카드에 대해서 정서적인 불편감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로샤의 통제 관련 변인, 즉 EA와 es가 개별 반응 수준에서 피검자가 경험하는 정서적인 불편감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면, 개별 로샤 카드와 관련된 주제들을 해석할 때 매우 유용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로샤 카드에 대한 반응이 EA 또는 es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응과정에서 대처자원 및 피검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반영해주는 변인인 EA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서적인 불편감의 측면에서 “es 포함반응”과 유사한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샤 검사에서 카드별 주제를 해석할 때 EA와 es가 나타나는 패턴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로샤 검사의 질적 해석 측면에서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카드 VIII에서 어느 피검자가 숨사탕이라는 반응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Weiner(1998)에 따르면, 카드 VIII은 정서적으로 작성된 상황에서 피검자가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관계있다. Schaffer(1954)

는 습사탕을 구강기적인 성격특성(oralty)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만약 해석과정에서 모든 습사탕 반응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구강기적인 성격특성을 지적한다면, 기계적인 접근의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매우 비만한 사람처럼, 어떤 이는 구강기적인 특성이 현실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적응적인 요리사처럼 동일한 특성이 또한 다른 이에게는 현실생활에 적응하는 토대로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계적인 접근을 피하기 위해, 해석자가 로사반응에 대해서는 은유와 상징에 기초한 문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게 되면,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제상황 하에서 로사검사의 통제 관련 변인, 즉 *EA*와 *es*가 나타나는 패턴은 로사 검사에 대한 피검자의 상징적인 반응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명료화하는 데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iner (1998)는 피검자가 로사 카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불편감을 경험하지 않으며 반응하는 것이 해당 로사 카드의 주제와 관계된 현실생활에서의 기능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관점을 현재의 논의에 적용시켜 보면, 만일 습사탕이라는 반응이 피검자의 정서평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불편감을 보이는 *EA*(예컨대, *FC*)를 포함하고 있다면, 피검자의 구강기적인 성격특성이 현실생활에서 적응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습사탕 반응이 높은 수준의 불편감과 관계된 *es*(예컨대, *Y*)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피검자의 구강기적인 성격특성은 현실생활에서 적응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피검자의 습사탕 반응에 *EA*와 *es*의 반응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석적인 의미 면에서는 *e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검자의 습사탕 반응에 *EA*와 *es*의 반응요소가 모두 포함된다면, 구강기적인 성격특성과 관계된 내면적인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도 함께 지니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로사 검사에 대한 질적인 해석 과정에서 통제 관련 변인만을 판단준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로사 반응의 질(quality)을 판단할 때는 심리적인 고통과 연관된 반응내용(*MOR*, *An*, *Bl*, *Xy* 등)을 보이는 지 여부, 형태질 상의 정확성 여부(*FQ_{xx}*, *FQ_{x-}*, *FQ_{xNone}*), 발달질 수준(*DQ_v* 또는 *DQ_{v/+}*), 인지적인 실수 또는 논리적인 결함과 관련된 특수점수(*DV*, *INC*, *DR*, *FAB*, *ALOG*, *CON*)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EA*와 *es* 반응요소들은 다른 준거들과는 달리, 로사의 구조적 요약 자료 중에서도 결정인(determinants), 즉 피검자가 카드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점의 특징(Exner, 1993)에 해당되는 변인이다. 또한 *EA*와 *es* 변인은 다른 변인들과는 달리, 로사 카드에서의 기대빈도가 둘 다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그 둘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EA*와 *es*는 카드별 주제 해석을 하는 경우 반응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적합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A*와 *es*의 반응빈도가 카드별로 매우 커다란 편차를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10 장의 로사 카드에 대한 기대빈도는 *EA*의 경우 12.29개이고 *es*의 경우 11.41개로서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일부 카드에서는 두 반응요소 간에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카드 VI에서의 *EA* 기대빈도는 .09인 반면, *es*의 기대빈도는 1.62로서 약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몇몇 카드에서 이처럼 *EA*와 *es*의 기대빈도가 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EA*와 *es*

변인을 기준으로 로샤 검사 반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세 가지 정서평정치 모두에서 로샤 반응 유형들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임상장면에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EA와 es 변인의 카드별 기대빈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A라는 피검자가 카드 VI에서 “es 포함반응”을 보았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카드별 주제 해석 과정에서 속단하기 보다 반응의 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준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에서의 반응 양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B라는 피검자가 카드 VI에서 “EA 포함반응”을 나타냈다면, 이러한 결과는 기대빈도가 매우 낮은 반응으로서, 피검자 B가 해당 로샤 카드의 주제와 관련해서 강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검자는 모두 대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피검자들이 나타낸 EA 반응수는 Exner(1993) 그리고 신경진과 원호택(1991)의 정상 성인 로샤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EA 반응수가 감소하는 점(Exner, 1993)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 피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EA를 나타낸 것은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다양한 연령과 학력을 가진 피검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피검자가 직접 로샤 카드에 대해서 정서평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검자가 로샤 카드에 대해서 경험하는 불편감을 측정하였다. Wetzler(1989)의 제안대로, 자기평정 방법은 피검자의 내부 상태에 대해 진정한 현상학

적 기술(a truly phenomenological description)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검자가 자신의 내부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각을 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므로, 전문가의 평정 및 생리적인 지표 등을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경진, 원호택 (1991). Exner 종합체계에 따른 한국정상성인의 Rorschach 반응특성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06-216.
- Aronow, E., & Reznikoff, M. (1976). *Rorschach content interpretation*. New York: Grune & Stratton.
- Aronow, E., Reznikoff, M., & Moreland, K. L.(1994). *The Rorschach technique*. Boston: Allyn & Bacon.
- Brown, F. (1953). An exploratory study of dynamic factors in the content of the Rorschach protocol.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17, 251-279.
- Exner, J. E. (1974).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New York: Wiley.
- Exner, J. E. Jr. (1993). *The Rorschach: A omprehensive system: vol. 1. Basic foundations* (3rd ed.). New York: Wiley.
- Exner, J. E., & Sanglade, A. A. (1992) Rorschach changes following brief and short term 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 59-71.
- Exner, J. E., Viglione, D. J., & Gillespie, R. (1984) Relationships between Rorschach variables as relevant to the interpretation of structural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65-70.
- Kendler, H. H. (1987). *Historical Foundations of Modern Psychology*. Chicago: The Dorsey Press.

- Klopfer, B., Ainsworth, M. D., Klopfer, W. G., & Holt, R. R. (1954). *Developments in the Rorschach technique: Technique and theory: Vol I.* onkers, NY: World Book.
- Piotrowski, Z., & Schreiber, M. (1952) Rorschach perceptanalytic measurement of personality changer during and after intensive psychoanalytically oriented psychotherapy. In G. Bychowski and J. L. Despert (Eds.), *Specialized Techniques in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Schafer, R. (1954).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in Rorschach testing*. New York: Grune & Stratton.
- Weiner, I. B. (1998). *Principles of Rorschach Interpret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iner, I. B., & Exner, J. E. (1991) Rorschach changes in long-term and short-term psycho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 453-465.
- Wetzler, S. (1989). Self-Report Tests: The Patient's Vantage. In S. Wetzler & M. M. Katz(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Psychological Assessment*. NewYork: Brunner/Marzel.

원 고 접 수 일 : 2002. 4. 8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
게 재 결 정 일 : 2003. 5. 17

K C I

The difference on subjective ratings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EA* and *es* in the Rorschach test

Young-Gun Ko

Chang-Yil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if there's any difference on affect ratings for Rorschach cards in relation to the actual patterns of control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were 65 volunteered undergraduate students(male 32, female 33). The Rorschach test was administered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cedure. Then the subjects were shown the Rorschach cards again one by one and asked to rate each card on 9 point scales on three dimensions; pleasure-displeasure, relaxation-tension, excitement-depression. All th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following four groups; "responses with *EA*", "responses with *EA-es*", "responses with *es*", and "responses without *EA-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bjects rated cards including "responses with *es*" or "responses without *EA-es*" more displeasing, tensive, depressive than cards including "responses with *EA*". Second, cards including "responses with *EA-es*" were rated at the middle between cards including "responses with *EA*" and cards including "responses with *es*" on all three dimensions. For the retest of the results, the Rorschach test was administered to new subjects(58 undergraduate students; male 31, female 27). Even though there were some minor differences on the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es were basically same in terms of general level of hypothesis testing. Finally,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the themes in the Rorschach cards, control related variables, Experience Actual, Experienced Stimulation, affect rating

부 록
로샤 카드에 대한 정서평정 질문지

다음의 로샤 카드를 세 가지 정서 차원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A. 쾌-불쾌 차원

쾌 불쾌
1----2----3----4----5----6----7----8----9

B. 이완-긴장 차원

이완 긴장
1----2----3----4----5----6----7----8----9

C. 흥분-우울 차원

흥분 우울
1----2----3----4----5----6----7----8----9

(10장의 로샤 카드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지 반복)